



화학/정유 Analyst 정경희 caychung09@kiwoom.com

RA 신대현 shin8d@kiwoom.com

LG화학 (051910)

전일 ESG Conference 내용

◎ ESG관련 탄소배출 감축 및 안전환경 추진 내용 공유

>> 12월 6일 ESG Conference Call 진행

- 동사는 ESG관련 탄소배출 및 안전환경 추진 관련하여 주주 정보 공유 차원으로 12월 6일 Conference Call 개최, 관련 내용을 공유, 질의응답 진행
- 이와 관련하여 5가지 목표가 있으며, 1) '30년 탄소중립성장, '50년 Net Zero 달성, 2) 재생에너지 전환 100% 달성, 3) 폐플라스틱/폐배터리 자원순환 체계 구축, 4) 폐기물 매립 제로화, 5) 책임있는 공급망 개발/관리가 이에 해당
- 탄소 감축 전략과 관련된 CAPEX 사항은 에너지 효율 개선과 연료 전환 투자관련 '30년까지 5,000~6,00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 현재 경영환경 변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탄소 감축 목표 시점의 변경은 없을 것으로 답변
- 환경안전 투자를 위해 매년 2000억원 이상으로 투자 집행 진행 중
- 이번 ESG Conference를 통하여 LG화학의 ESG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었으며, 그간 국내 화학사들의 경우 과거 10여년 전부터 ESG에 대한 목표 및 진행 내용을 주주에게 여러 행사를 통해 제시하고 공유해온 유럽, 북미 대비 다소 지연된 부분은 있지만, CAPEX 및 조직 구성 등에 미루어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
- 폐플라스틱 재활용, 바이오 연료, 바이오 플라스틱 등 업계내 다양하게 나타나는 친환경 제품 수요 및 정책을 감안할 때, 이러한 준비는 향후 신규 시장에 대한 준비로도 긍정적인 영향 예상

◎ FEOC 및 배당 정책 관련

>> ESG Conference였지만, 일부 FEOC 및 배당 정책 등 현안 질의 응답도 진행되었음.

- IRA FEOC에 대하여 추가해석의 여지는 있으나 이번 발표로 전체적인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하며 그간 회사가 준비하거나 예상한 범위내에서 발표된 것으로 답변. 중국 화요와 합자법인으로 설립된 구미 합작법인의 경우 FEOC에 미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밝힘. 다만, 향후 공급망 관련 특히 메탈 분야에서 좀 더 적극적인 투자(Off-take 체결, 장기 계약 등 포함)를 추진해나갈 것으로 답변
- 향후 3년간 친환경 투자가 집중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배당정책에 따라 보통주 기준 1만원 이상, 연결기준 배당성향 30% 이상을 진행하였으나, 현 시점에서는 향후 3년간의 EBITDA로 CAPEX를 전체 조달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일시적으로 배당성향에 대한 단기 조정이 있을 것으로 밝힘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2월 6일 현재 상기 언급된 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